2016학년도 원주의과대학 재학생인식도 조사

상담·코칭센터에서는 지난 3개월 간 재학생이 경험한 정신건강상태와 심리적 불편함, 이에 대한 해소방법 등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대학생활 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이트가 말한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학업(일)과 관계(사랑)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밀성이 에릭슨(E. Erikson)의 성격발달이론에 따르면 청년기에 달성해 가야 할 주요 과업이자 '성'개념을 정립해가는데 있어서 주요한 동기인데, 이러한 친밀성이 발현되는 영역에서의 성 감수성을 위한 성관계, 성희롱·성폭력 대처 등의 인식을함께 조사하여 관련 예방교육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목 록>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 전체 학생 설문조사 결과
 - 가. 심리상태와 개인상담 및 상담코칭센터에 대한 인식도
 - 나. '성 의식' 감수성을 위한 인식도
- 3. 학과별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 3-1. 간호학과
- 3-2. 의예과
- 3-3. 의학과
- 3-4. 치위생학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는 전체 재학생 421명이 참여하였다. 학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간호학과 94명 (22.3%), 의예과 77명(18.3%), 의학과 136명(32.3%), 치위생학과 114명(27.1%)으로 나타났고, 학년별 참여인원은 다음과 같다.

학과	학년	응답인원(명)		%
가능하기	2	46	0.4	22.3
간호학과	3	48	94	
의예과	2	77	77	18.3
이하다	1	85	136	32.3
의학과	3	51		
	2	37		
치위생학과	3	37	114	27.1
	4	40		

합계 421 100.0

2. 전체 학생 설문조사 결과

가. 심리상태와 개인상담 및 상담코칭센터에 대한 인식도

1) 학생들의 정신건강

전체 학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상태를 외로움, 불안, 분노, 우울·무기력, 자살생각 총 5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외로움의 평균은 2.13(SD= .863), 불안 2.05(SD= .806), 분노 1.92(SD= .777), 우울·무기력 2.12(SD= .873), 자살생각 1.21(SD= .580)로 모든 정신건강 평균들이 '평균 이하'였다. 다른 정신건강 점수들과 비교했을 때 외로움과 우울·무기력 점수가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심리상태의 '자주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 중에서는 우울·무기력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많았다(125명, 29.9%).

	응답인원	'자주 이상'인원	%	척도평균	표준편차
외로움	419	114	27.2	2.13	.863
불안	418	103	24.6	2.05	.806
분노	418	82	19.6	1.92	.777
우울·무기력	418	125	29.9	2.12	.873
자살생각	418	16	3.8	1.21	.580

주.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1= 전혀 없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항상 그렇다)

2) 심리적인 불편함 영역

학생들이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영역을 조사한 결과 학업이 207명(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 105명(22.6%), 이성관계(9.3%), 경제(6.7%), 정신건강(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 용	응답인원	%
성격	16	3.4
학업	207	44.6
대인관계	105	22.6
이성관계	43	9.3
경제	31	6.7
가정	9	1.9
정신건강	28	6.0
기타(미래, 피곤, 수면, 운동, 건강, 군대, 있다가도 없어지는 불편감 등)	17	3.7
무응답	8	1.7
합계	464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3) 스트레스 발생 시 해소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먹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27명(43.8%)으

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 독서, 산책 등으로 해소 83명(16.0%), 친구/가족에게 의논하는 경우 77명(14.9%), TV시청, 인터넷 사용 등으로 해소하는 사람이 50명(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 용	응답인원	%
Ч 6	2007	/0
먹거나 잠을 잠	227	43.8
운동, 독서, 산책 등	83	16.0
담배나 술 이용	52	10.0
친구/가족에게 의논	77	14.9
전시회, 음악회 등 감상	5	1.0
종교 활동 통해	10	1.9
상담/전문기관 찾음	1	0.2
TV 시청, 인터넷 사용	50	9.7
기타(게임, 가만히 있음, 잠, 없음, 아직 못 찾음 등)	12	2.3
무응답	1	0.2
합계	518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4) 현재의 심리적 불편함에 대하여 개인상담 받을 의향

심리적 불편함에 대한 개인상담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없다 290명(68.9%), 있다 89명(21.1%), 모르겠다 37명(8.8%)순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는 이유로는 정서를 수용하겠다거나 진짜 모르겠다, 여유가 없다, 문제가 없다 등이 있었다.

내 용	응답인원	%
있다	89	21.1
없다	290	68.9
모르겠다(정서 수용, 진짜 모르겠다, 여유 없다, 문제가 없다, 오픈이 불편, 귀찮음, 부담됨 등)	37	8.8
무응답	5	1.2
합계	421	100.0

4-1) 개인상담에 대한 인식

개인상담에 대한 개념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발전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 받는 것' $185 \, \text{명}(43.9\%)$, '스스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 $114 \, \text{g}(27.1\%)$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 용	응답인원	%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	41	9.7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발전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 받는 것	185	43.9
스스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도움 받는 것	114	27.1

내가 가진 고민을 하소연 하는 것	58	13.8
상담·코칭센터에서 참여연락이 왔을 때 하는 것	5	1.2
기타(받고 싶을 때 받는 것 등)	4	1.0
무응답	14	3.3
합계	435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4-2) 상담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

상담 받을 의향이 없다고 한 학생들의 이유로는 '문제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아서'(20.2%),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9.5%),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16.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 용	응답인원	%
상담 의향 있다	30	6.8
안 좋게(문제 있어) 보일까봐	21	4.8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72	16.4
문제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아서	89	20.2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86	19.5
오픈하기 싫어서	49	11.1
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12	2.7
시간이 없어서	36	8.2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9	2.0
기타(귀찮음, 나만의 방법이 있음,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어색해서 등)	12	2.7
무응답	24	5.5
합계	440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5) 상담코칭센터에 대한 인식

상담코칭센터에 대해서는 약 3/4의 학생들(73.2%)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 용	응답인원	%
안다	308	73.2
모른다	111	26.4
무응답	2	0.5
합계	421	100.0

5-1) 상담코칭센터 서비스 선호

상담코칭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는 심리검사(41.0%), 개인상담(31.1%), 생활코칭(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 용	응답인원	%
개인(집단)상담	141	31.1
생활코칭(학습, 연애 등)	80	17.6
심리검사(성격, 적성 등)	186	41.0
교육(특강, 워크샵 등)	18	4.0
사이버(e-mail) 상담	14	3.1
기타(없음, 학업 코칭 등)	7	1.5
무응답	8	1.8
합계	454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나. '성 의식' 감수성을 위한 인식도

1) 성별 및 연령분포

본 설문에 참여한 성별분포는 남성 181명(43.0%), 여성 238명(56.5%), 무응답 2명(0.5%)으로 총 421명(100.0%)이며 만으로 조사한 연령분포는 다음과 같다.

나 이	남 성	여 성	응답인원	연령비율%
만 19세	14	43	57	13.5
만 20세	35	60	95	22.6
만 21 세	33	65	98	23.3
만 22세	26	33	59	14.0
만 23세	40	17	57	13.5
만 24세	18	11	29	6.9
만 25세 이상	13	5	18	4.3
나이 무응답(성별 표기)	2	4	6	1.4
나이 무응답(성별 미표기)	0	0	2	0.5
합계	181(43.0)	238(56.5)	421	100.0

2)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사랑하면 괜찮다',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이다'가 35.3%로 가장 높았다. 다만,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는 인식은 여성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7%).

내 용	남성(%)	여성(%)	전체응답빈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13(7.1)	50(20.7)	63	14.7
사랑하면 괜찮다	76 (41.3)	75(31.0)	151	35.3
결혼이나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	13(7.1)	9(3.7)	22	5.1
절대로 안 된다	9(4.9)	18(7.4)	27	6.3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이다	67(36.4)	84(34.7)	151	35.3
이성간의 충동에 의한 결과이다	6(3.3)	6(2.5)	12	2.8
무응답	1	ı	2	0.5
빈도/총 인원	184/181	242/238	428 /421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3) 이성친구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생각

이성친구가 성관계를 요구했을 경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가 30.2%로 그 뒤를 이었다. 세부내용에서 각 응답 별로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이다(남성, 54.4%), '단호하게 거절한다'(여성, 23.4%),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여성, 34.7%)는 성별 비율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할 것 같다	6(3.3)	5(2.1)	11(2.6)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	44(24.2)	83(34.7)	127(30.2)
결혼이나 사랑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16(8.8)	2(0.8)	18(4.3)
단호하게 거절한다	17(9.3)	56(23.4)	73(17.3)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이다	99(54.4)	92(38.5)	191(45.4)
무응답	0	1(0.4)	1(0.2)
빈도/총 인원	182/181	239/238	421 /421(100.0)

4)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경찰이나 외부센터에 신고'한다는 비율이 40.6%,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의사를 밝힌다'(36.6%) 순으로 응답하였다. 친구 또는 가족과 의논하는 비율은 여성이(18.5%) 남성보다 더 높았다.

	_ , _ , , _ , _	—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일단 참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얘기한다	4(2.2)	6(2.5)	10(2.4)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의사를 밝힌다	69(38.1)	85(35.7)	154(36.6)
친구 또는 가족과 의논한다	16(8.8)	44(18.5)	60(14.3)
불쾌해도 혼자 참는다	4(2.2)	9(3.8)	13(3.1)
교내 상담센터에 의논한다	7(3.9)	4(1.7)	11(2.6)
경찰이나 외부센터에 신고한다	81(44.8)	90(37.8)	171(40.6)
무응답	_	_	2(0.5)
빈도/총 인원	181/181	238/238	421 /421(100.0)

5) 피임에 대한 인식

피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는 응답비율(53.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피임에 대한 다른 견해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적게 나타났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현재 필요치 않아서 관심이 없다	21(11.3)	35(14.2)	56(12.9)
필요성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	10(5.4)	18(7.3)	28(6.5)
방법을 알고 있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49(26.3)	56(22.8)	105(24.2)
피임은 상대방의 책임이다	3(1.6)	1(0.4)	4(0.9)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98(52.7)	132(53.7)	230(53.0)
피임도구에 거부감이 든다	3(1.6)	4(1.6)	7(1.6)
무응답	2(1.1)	0	4(0.9)
빈도/총 인원	186/181	246/238	434 /421(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6)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시 원하는 주제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주제는 '피임법, 성병에 관한 교육'(25.6%),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20.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내용에 있어서 남성이 가장 많이 원하는 주제는 '연인과의 스킨십과 성 의사소통'(24.7%)으로 여성(12.9%)보다 높았으며,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관심은 여성이 23.5%로 남성관심(10.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피임법, 성병에 관한 교육	40(21.1)	79 (29.0)	119(25.6)
성 인지 감수성	26(13.7)	20(7.4)	46(9.9)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20(10.5)	64(23.5)	84(18.1)
연인과의 스킨십과 성 의사소통	47 (24.7)	35(12.9)	82(17.7)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36(18.9)	57(21.0)	93(20.0)
기타(신체방어기술, 구성애 강의, 성욕구 해소 등)	16(8.4)	14(5.1)	30(6.5)
무응답	5(2.6)	3(1.1)	10(2.2)
빈도/총 인원	190/181	272/238	464 /421(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7) 선호하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방법

성희롱·성폭력예방을 위하여 선호하는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은 단체교육(32.4%), 동성끼리 교육(31.7%)의 순으로 높게 나왔다. 동성끼리 교육방법은 여성이(38.2%), 단체교육은 남성이(41.4%) 더 높은 선호로 나타났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동성끼리 교육(남/녀 학생별 따로)	42(23.2)	95(38.2)	137(31.7)

단체교육(채플, 특강 등)	75 (41.4)	65(26.1)	140(32.4)
수업 후 학년별 특강	24(13.3)	32(12.9)	56(13.0)
학과별 특강	13(7.2)	34(13.7)	47(10.9)
학생회주관 교육	5(2.8)	9(3.6)	14(3.2)
기타(어려서부터 해야, 동급·동성, 개인이 알아서, 자원자 소규모로, 가정교육, 술 안마시면 됨, 교수님도 참석하셔야, 관심 없음 등)	19(10.5)	11(4.4)	30(6.9)
무응답	3(1.7)	3(1.2)	8(1.9)
빈도/총 인원	181/181	249/238	432/421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8) 성 관련 고민 시 상담코칭센터 이용 의사

성 관련 주제로 고민발생 시 상담코칭센터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8.3%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불편함에 대한 개인상담을 위한 이용 빈도인 21.1%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내 용	99 답 인원	%
그렇다	119	28.3
아니다	240	57.0
모르겠다(부끄럽다, 비밀보장이 될지, 필요가 생긴다면, 말 못할 것 같다. 아직 모르겠다 등)	57	13.5
무응답	5	1.2
합계	421	100.0

3. 학과별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3-1. 간호학과

1) 정신건강

	응답인원	'자주 이상'인원	%	척도평균	표준편차
외로움	90	32	35.6	2.21	.971
불안	91	24	26.4	2.01	.836
분노	90	22	24.4	1.95	.834
우울·무기력	89	30	33.7	2.11	.944
자살생각	89	4	4.5	1.16	.644

주.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1= 전혀 없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항상 그렇다)

2) 심리적인 불편함 영역

내 용	응답인원	%
성격	4	4.3
학업	51	54.3
대인관계	18	19.1

이성관계	5	5.3
경제	5	5.3
가정	1	1.1
정신건강	5	5.3
기타(수면, 군대, 미래, 모르겠다)	4	4.3
무응답	1	1.1
합계	94	100.0

3) 스트레스 발생 시 해소법

내 용	응답인원	%
먹거나 잠을 잠	61	56.0
운동, 독서, 산책 등	11	10.1
담배나 술 이용	5	4.6
친구/가족에게 의논	10	9.2
종교 활동 통해	4	3.7
TV 시청, 인터넷 사용	14	12.8
기타(가만히, 게임 등)	3	2.8
무응답	1	0.9
합계	109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4) 현재의 심리적 불편함에 대하여 개인상담 받을 의향

내 용	응답인원	%
있다	22	23.4
없다	62	66.0
모르겠다(여유 없다 등)	9	9.6
무응답	1	1.1
합계	94	100.0

4-1) 개인상담에 대한 인식

내 용	응답인원	%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	5	5.3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발전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 받는 것	47	50.0
스스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도움 받는 것	24	25.5
내가 가진 고민을 하소연 하는 것	17	18.1

상담·코칭센터에서 참여연락이 왔을 때 하는 것	1	1.1
기타	0	0
합계	94	100.0

4-2) 상담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

내 용	응답인원	%
상담 의향 있다	16	17.0
안 좋게(문제 있어) 보일까봐	7	7.4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3	13.8
문제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아서	20	21.3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1	11.7
오픈하기 싫어서	17	18.1
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2	2.1
시간이 없어서	4	4.3
기타(어색함, 귀찮음 등)	4	4.3
합계	94	100.0

5) 상담코칭센터에 대한 인식

내 용	응답인원	%
안다	59	62.8
모른다	35	37.2
합계	94	100.0

5-1) 상담코칭센터 서비스 선호

내 용	응답인원	%
개인(집단)상담	36	35.0
생활코칭(학습, 연애 등)	20	19.4
심리검사(성격, 적성 등)	38	36.9
교육(특강, 워크샵 등)	5	4.0
사이버(e-mail) 상담	3	2.9
기타	1	1.0
합계	103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6)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사랑하면 괜찮다는 비율이 31.9%였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19.2%), 절대로 안 된다(16.7%)는 견해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	여성(%)	전체응답	합빈도(%)
1(6.25)	15(19.2)	16	17.0
8(50.0)	22(28.2)	30	31.9
1(6.25)	3(3.8)	4	4.3
1(6.25)	13(16.7)	14	14.9
4(25.0)	22(28.2)	26	27.7
1(6.25)	2(2.6)	3	3.2
0	1(1.3)	1	1.1
16/16	78/78	94/94	100.0
	1(6.25) 8(50.0) 1(6.25) 1(6.25) 4(25.0) 1(6.25) 0	1(6.25) 15(19.2) 8(50.0) 22(28.2) 1(6.25) 3(3.8) 1(6.25) 13(16.7) 4(25.0) 22(28.2) 1(6.25) 2(2.6) 0 1(1.3)	1(6.25) 15(19.2) 16 8(50.0) 22(28.2) 30 1(6.25) 3(3.8) 4 1(6.25) 13(16.7) 14 4(25.0) 22(28.2) 26 1(6.25) 2(2.6) 3 0 1(1.3) 1

7) 이성친구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생각

이성친구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5.1%였는데,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는 비율은 남성이 43.8%,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비율은 여성이 37.2%로 높았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음	0	2(2.6)	2(2.1)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	7 (43.8)	18(23.1)	25(26.6)
결혼이나 사랑과 관계없이 가능	1(6.3)	1(1.3)	2(2.1)
단호하게 거절	3(18.8)	29 (37.2)	32(34.0)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	5(31.3)	28(35.9)	33(35.1)
빈도/총 인원	16/16	78/78	94/94(100.0)

8)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에 있어서 남성은 경찰이나 외부센터에 신고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68.8%), 여성은 50%를 나타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의사를 밝히겠다는 여성은 30.8%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일단 참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얘기	1(6.3)	2(2.6)	3(3.2)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의사 밝힘	3(18.8)	24(30.8)	27(28.7)
친구 또는 가족과 의논	1(6.3)	10(12.8)	11(11.7)
불쾌해도 혼자 참음	0	1(1.3)	1(1.1)
교내 상담센터에 의논	0	2(2.6)	2(2.1)
경찰이나 외부센터에 신고	11(68.8)	39(50.0)	50(53.2)
빈도/총 인원	16/16	78/78	94/94(100.0)

9) 피임에 대한 인식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현재 필요치 않아서 관심 없음	2(12.5)	12(15.4)	14(14.9)
필요성 있으나 구체적 방법 모름	1(6.3)	8(10.3)	9(9.6)
방법을 알고 있고 필요하면 할 수 있음	4(25.0)	15(19.2)	19(20.2)
피임은 상대방의 책임임	0	1(1.3)	1(1.1)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한 필수	7(43.8)	42(53.8)	49(52.1)
피임도구에 거부감	1(6.3)	0	1(1.1)
무응답	1(6.3)	0	1(1.1)
빈도/총 인원	16/16	78/78	94/94(100.0)

10)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시 원하는 주제

예방교육 시 원하는 주제에 있어서 피임법, 성병에 관한 교육(27.7%)을 원했는데, 성별에 따라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주제는 여성이 23.1%, 남성은 0%, 기타 주제는 여성이 3.8%, 남성이 25%의 비율을 보였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피임법, 성병에 관한 교육	3(18.8)	23(29.5)	26(27.7)
성 인지 감수성	3(18.8)	6(7.7)	9(9.6)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0	18(23.1)	18(19.1)
연인과의 스킨쉽과 성 의사소통	3(18.8)	14(17.9)	17(18.1)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3(18.8)	14(17.9)	17(18.1)
기타(구성애 강의 등)	4(25.0)	3(3.8)	7(7.4)
빈도/총 인원	16/16	78/78	94/94(100.0)

11) 선호하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방법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동성끼리 교육(남/녀 따로)	2(12.5)	30(38.5)	32 (34.0)
단체교육(채플, 특강 등)	7(43.8)	22(28.2)	29(30.9)
수업 후 학년별 특강	2(12.5)	10(12.8)	12(12.8)
학과별 특강	2(12.5)	10(12.8)	12(12.8)
학생회주관 교육	0	4(5.1)	4(4.3)
기타(유인물 등)	3(18.8)	2(2.6)	5(5.3)
빈도/총 인원	16/16	78/78	94/94(100.0)

12) 성 관련 고민 시 상담코칭센터 이용 의사

내 용	응답인원	%
그렇다	29	30.9
아니다	45	47.9
모르겠다(필요생기면, 비밀보장, 말 못할 듯 등)	20	21.3
합계	94	100.0

3-2. 의예과

1) 정신건강

	응답인원	'자주 이상'인원	%	척도평균	표준편차
외로움	77	25	32.5	2.30	.796
불안	77	16	20.8	2.05	.826
분노	77	15	19.5	1.95	.841
우울·무기력	77	20	26.0	2.16	.875
자살생각	77	3(거의 항상)	3.9	1.25	.652

주.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1= 전혀 없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항상 그렇다)

2) 심리적인 불편함 영역

내 용	응답인원	%
성격	2	2.3
학업	20	23.0
대인관계	27	31.0
이성관계	17	19.5
경제	6	6.9
가정	1	1.1
정신건강	8	9.2
기타(살 찜, 뭐하지?, 동아리, 운동, 건강 등)	6	6.9
합계	82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3) 스트레스 발생 시 해소법

내 용	응답인원	%
먹거나 잠을 잠	33	35.5
운동, 독서, 산책 등	22	23.7
담배나 술 이용	9	9.7
친구/가족에게 의논	14	15.1
전시회, 음악회 등 감상	2	2.2

종교 활동 통해	4	4.3
상담/전문기관 찾음	2	2.2
TV 시청, 인터넷 사용	6	6.5
기타(LoL 게임)	1	1.1
합계	93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4) 현재의 심리적 불편함에 대하여 개인상담 받을 의향

내 용	응답인원	%
있다	19	24.7
없다	53	68.8
모르겠다(진짜 모르겠다 등)	4	5.2
무응답	1	1.3
합계	77	100.0

4-1) 개인상담에 대한 인식

내 용	응답인원	%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	8	10.1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발전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 받는 것	37	46.8
스스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도움 받는 것	22	27.8
내가 가진 고민을 하소연 하는 것	11	13.9
기타	1	1.3
합계	79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4-2) 상담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

내 용	원 당답 응	%
안 좋게(문제 있어) 보일까봐	6	7.8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2	15.6
문제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아서	18	23.4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7	22.1
오픈하기 싫어서	5	6.5
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3	3.9
시간이 없어서	5	6.5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4	5.2
기타(나만의 방법 있음, 스스로 해결하고픔, 귀찮음 등)	4	5.2

무응답	3	3.9
합계	77	100.0

5) 상담코칭센터에 대한 인식

내 용	응답인원	%
안다	31	40.3
모른다	46	59.7
합계	77	100.0

5-1) 상담코칭센터 서비스 선호

내 용	응답인원	%
개인(집단)상담	28	34.1
생활코칭(학습, 연애 등)	24	29.3
심리검사(성격, 적성 등)	25	30.5
교육(특강, 워크샵 등)	2	2.4
기타(없음)	2	2.4
무응답	1	1.2
합계	82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6)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사랑하면 괜찮다는 인식에는 남성이 41.8%,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이라는 인식은 여성이 50.0%의 비율을 보였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는 비율은 여성이 20.8%, 이성간 충동에 의한 결과라는 비율은 남성이 7.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11.724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음	5(9.1)	5(20.8)	10(12.7)
사랑하면 괜찮음	23(41.8)	5(20.8)	28 (35.4)
결혼이나 사랑 없이도 가능	3(5.5)	1(4.2)	4(5.1)
절대로 안 됨	5(9.1)	1(4.2)	6(7.6)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	15(27.3)	12(50.0)	27(34.2)
이성간의 충동에 의한 결과	4(7.3)	0	4(5.1)
빈도/총 인원	55/54	24/23	79/77(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7) 이성친구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생각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음	1(1.9)	2(8.3)	3(3.8)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	16(29.6)	7(29.2)	23(29.5)
결혼이나 사랑과 관계없이 가능	7(13.0)	0	7(9.0)
단호하게 거절	5(9.3)	5(20.8)	10(12.8)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	25(46.3)	10(41.7)	35(44.9)
빈도/총 인원	54/54	24/23	78/77(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8)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일단 참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얘기	1(1.9)	0	1(1.3)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의사 밝힘	22(40.7)	9(39.1)	31(40.3)
친구 또는 가족과 의논	2(3.7)	5(21.7)	7(9.1)
불쾌해도 혼자 참음	1(1.9)	3(13.0)	4(5.2)
교내 상담센터에 의논	2(3.7)	0	2(2.6)
경찰이나 외부센터에 신고	26(48.1)	6(26.1)	32 (41.6)
빈도/총 인원	54/54	23/23	77(100.0)

9) 피임에 대한 인식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현재 필요치 않아서 관심 없음	8(14.3)	4(14.8)	12(14.5)
필요성 있으나 구체적 방법 모름	3(5.4)	4(14.8)	7(8.4)
방법을 알고 있고 필요하면 할 수 있음	14(25.0)	8(29.6)	22(26.5)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한 필수	30(53.6)	8(29.6)	38(45.8)
피임도구에 거부감	1(1.8)	3(11.1)	4(4.8)
빈도/총 인원	56/54	27/23	83/77(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10)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시 원하는 주제

예방교육에서는 피임법, 성병관련 교육(27.3%), 연인과의 스킨십과 성 의사소통(23.4%) 주제 순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은 여성이 21.7%의 비율로 남성의 7.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피임법, 성병 관련 교육	14(25.9)	7(30.4)	21(27.3)

성 인지 감수성	7(13.0)	2(8.7)	9(11.7)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4(7.4)	5(21.7)	9(11.7)
연인과의 스킨십과 성 의사소통	14(25.9)	4(17.4)	18(23.4)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10(18.5)	3(13.0)	13(16.9)
기타(없음, 성욕구 해소 등)	4(7.4)	1(4.3)	5(6.5)
무응답	1(1.9)	1(4.3)	2(2.6)
빈도/총 인원	54/54	23/23	77/77(100.0)

11) 선호하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방법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 -			
동성끼리 교육(남/녀 따로)	19(35.2)	7(26.9)	26(32.5)
단체교육(채플, 특강 등)	19(35.2)	5(19.2)	24(30.0)
수업 후 학년별 특강	5(9.3)	8(30.8)	13(16.3)
학과별 특강	3(5.6)	2(7.7)	5(6.3)
학생회주관 교육	2(3.7)	1(3.8)	3(3.8)
기타(소규모, 관심 없음, 관련법안 강화 등)	6(11.1)	2(7.7)	8(10.0)
무응답	0	1(3.8)	1(1.3)
빈도/총 인원	54/54	26/23	80/77(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12) 성 관련 고민 시 상담코칭센터 이용 의사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그렇다	24(44.4)	8(34.8)	32(41.6)
아니다	29(53.7)	8(34.8)	37 (48.1)
모르겠다	1(1.9)	7(30.4)	8(10.4)
총 인원	54	23	77(100.0)

3-3. 의학과

1) 정신건강

	응답인원	'자주 이상'인원	%	척도평균	표준편차
외로움	134	31	23.0	2.01	.813
불안	133	31	23.0	2.01	.783
분노	133	18	14.0	1.83	.709
우울·무기력	133	28	21.0	1.95	.787
자살생각	133	4	3.0	1.20	.533

주.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1= 전혀 없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항상 그렇다)

2) 심리적인 불편함 영역

내 용	응답인원	%
성격	7	4.6
학업	74	49.0
대인관계	30	19.9
이성관계	15	9.9
경제	6	4.0
가정	4	2.6
정신건강	9	6.0
기타(신체피로, 피곤, 잠, 없음)	4	2.6
무응답	2	1.3
합계	151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3) 스트레스 발생 시 해소법

내 용	응답인원	%
먹거나 잠을 잠	60	33.3
운동, 독서, 산책 등	37	20.6
담배나 술 이용	29	16.1
친구/가족에게 의논	28	15.6
전시회, 음악회 등 감상	1	0.6
종교 활동 통해	2	1.1
TV 시청, 인터넷 사용	18	10.0
기타(없음, 게임, 동아리 등)	5	2.8
합계	180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4) 현재의 심리적 불편함에 대하여 개인상담 받을 의향

내 용	응답인원	%
있다	21	15.4
없다	103	75.7
모르겠다(정서수용, 지장이 없다, 오픈이 불편, 귀찮음, 부담 등)	9	6.6
무응답	3	2.2
합계	136	100.0

4-1) 개인상담에 대한 인식

내 용	응답인원	%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	19	12.8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발전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 받는 것	56	37.8
스스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도움 받는 것	40	27.0
내가 가진 고민을 하소연 하는 것	24	16.2
상담·코칭센터에서 참여연락이 왔을 때 하는 것	3	2.0
기타(받고 싶을 때 받는 것 등)	2	1.4
무응답	4	2.7
합계	148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4-2) 상담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

내 용	응답인원	%
상담 의향 있다	6	4.1
안 좋게(문제 있어) 보일까봐	4	2.7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27	18.2
문제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아서	30	20.3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31	20.9
오픈하기 싫어서	14	9.5
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5	3.4
시간이 없어서	17	11.5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2	1.4
기타(그렇게 필요치 않음 등)	2	1.4
무응답	10	6.8
합계	148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5) 상담코칭센터에 대한 인식

내 용	응답인원	%
안다	119	87.5
모른다	15	11.0
무응답	2	1.5
합계	136	100.0

5-1) 상담코칭센터 서비스 선호

내 용	응답인원	%
개인(집단)상담	44	29.5
생활코칭(학습, 연애 등)	27	18.1
심리검사(성격, 적성 등)	57	38.3
교육(특강, 워크샵 등)	8	5.4
사이버(e-mail) 상담	3	2.0
기타(학업 코칭, 없음 등)	5	3.4
무응답	5	3.4
합계	149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6)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음	7(7.1)	6(15.4)	13(9.4)
사랑하면 괜찮음	40(40.8)	10(25.6)	50(36.2)
결혼이나 사랑 없이도 가능	9(9.2)	3(7.7)	12(8.7)
절대로 안 됨	3(3.1)	1(2.6)	4(2.9)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	38(38.8)	18(46.2)	56(40.6)
이성간의 충동에 의한 결과	1(1.0)	1(2.6)	2(1.4)
무응답	-	_	1(0.7)
빈도/총 인원	98	39	138/136(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7) 이성친구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생각

이성친구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57.8%)이라는 인식의 세부내용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31.6%), 단호하게 거절한다(18.4%)의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음	3(3.1)	0	3(2.2)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	18(18.6)	12(31.6)	30(22.2)
결혼이나 사랑과 관계없이 가능	8(8.2)	0	8(5.9)
단호하게 거절	9(9.3)	7(18.4)	16(11.9)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	59(60.8)	19(50.0)	78(57.8)
빈도/총 인원	97	38	135/136(100.0)

8)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일단 참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얘기	1(1.0)	1(2.4)	2(1.4)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의사 밝힘	39 (39.0)	11(26.8)	50(35.0)
친구 또는 가족과 의논	11(11.0)	12(29.3)	23(16.1)
불쾌해도 혼자 참음	3(3.0)	1(2.4)	4(2.8)
교내 상담센터에 의논	3(3.0)	0	3(2.1)
경찰이나 외부센터에 신고	43(43.0)	16(39.0)	59(41.3)
무응답	_	ı	2(1.4)
빈도/총 인원	100	41	143/136(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9) 피임에 대한 인식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현재 필요치 않아서 관심 없음	11(11.1)	8(20.5)	19(13.6)
필요성 있으나 구체적 방법 모름	3(3.0)	1(2.6)	4(2.9)
방법을 알고 있고 필요하면 할 수 있음	25(25.3)	12(30.8)	37(26.4)
피임은 상대방의 책임임	2(2.0)	0	2(1.4)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한 필수	57(57.6)	18(46.2)	75(53.6)
피임도구에 거부감	1(1.0)	0	1(0.7)
무응답	-	-	2(1.4)
빈도/총 인원	99	39	140/136(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10)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시 원하는 주제

예방교육 시 원하는 주제로는 연인과의 스킨십과 성 의사소통이 20.3%, 피임법, 성병 관련교육 19.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내용에서 여성은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30.8%), 남성은 연인과의 스킨십과 성 의사소통(25.5%)을 나타내어 성별 관심도의 차이를 보였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피임법, 성병 관련 교육	20(19.6)	8(20.5)	28(19.6)
성 인지 감수성	13(12.7)	4(10.3)	17(11.9)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12(11.8)	12(30.8)	24(16.8)
연인과의 스킨십과 성 의사소통	26(25.5)	3(7.7)	29(20.3)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19(18.6)	8(20.5)	27(18.9)
기타(없음 등)	8(7.8)	2(5.1)	10(7.0)
무응답	4(3.9)	2(5.1)	8(5.6)
빈도/총 인원	102	39	143/136(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11) 선호하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방법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동성끼리 교육(남/녀 따로)	18(18.8)	12(31.6)	30(22.1)
단체교육(채플, 특강 등)	44(45.8)	8(21.1)	52 (38.2)
수업 후 학년별 특강	16(16.7)	5(13.2)	21(15.4)
학과별 특강	5(5.2)	7(18.4)	12(8.8)
학생회주관 교육	1(1.0)	1(2.6)	2(1.5)
기타(가정교육, 자원자 소규모, 술 안마시면 됨, 동급동성, 개인 알아서 등)	10(10.4)	4(10.5)	14(10.3)
무응답	2(2.1)	1(2.6)	5(3.7)
빈도/총 인원	96	38	136/136(100.0)

12) 성 관련 고민 시 상담코칭센터 이용 의사

내 용	응답인원	%
그렇다	29	21.3
아니다	83	61.0
모르겠다(주제마다 다를 것, 익명성, 부끄러움, 꺼려짐 등)	21	15.4
무응답	3	2.2
합계	136	100.0

3-4. 치위생학과

1) 정신건강

	응답인원	'자주 이상'인원	%	척도평균	표준편차
외로움	114	26	22.8	2.08	.853
불안	114	32	28.1	2.12	.800
분노	114	27	23.7	1.96	.763
우울·무기력	114	47	41.2	2.32	.876
자살생각	114	5	4.4	1.22	.528

주.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1= 전혀 없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항상 그렇다)

2) 심리적인 불편함 영역

내 용	응답인원	%
성격	3	2.3
학업	62	47.0
대인관계	30	22.7

합계	132	100.0
무응답	5	3.8
기타(낯선 환경, 있다가도 없어지는 불편감 등)	3	2.3
정신건강	6	4.5
가정	3	2.3
경제	14	10.6
이성관계	6	4.5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3) 스트레스 발생 시 해소법

내 용	응답인원	%
먹거나 잠을 잠	73	50.7
운동, 독서, 산책 등	13	9.0
담배나 술 이용	9	6.2
친구/가족에게 의논	25	17.4
전시회, 음악회 등 감상	2	1.4
상담/전문기관 찾음	1	0.7
TV 시청, 인터넷 사용	18	12.5
기타(아직 못 찾음 등)	3	2.1
합계	144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4) 현재의 심리적 불편함에 대하여 개인상담 받을 의향

내 용	응답인원	%
있다	27	23.7
없다	72	63.2
모르겠다(해소·도움 될지?, 심각하지 않다, 시간 없다 등)	15	13.1
합계	114	100.0

4-1) 개인상담에 대한 인식

내 용	응답인원	%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	9	7.9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발전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 받는 것	46	40.4
스스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도움 받는 것	32	28.1
내가 가진 고민을 하소연 하는 것	15	13.2
상담·코칭센터에서 참여연락이 왔을 때 하는 것	1	0.9

기타	1	0.9
무응답	10	8.8
합계	114	100.0

4-2) 상담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

내 용	응답인원	%
상담 의향 있다	8	6.6
안 좋게(문제 있어) 보일까봐	4	3.3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20	16.5
문제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아서	21	17.4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7	22.3
오픈하기 싫어서	13	10.7
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2	1.7
시간이 없어서	10	8.3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3	2.5
기타	2	1.7
무응답	11	9.1
합계	121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5) 상담코칭센터에 대한 인식

내 용	응답인원	%
안다	99	86.8
모른다	15	13.2
합계	114	100.0

5-1) 상담코칭센터 서비스 선호

내 용	응답인원	%
개인(집단)상담	33	23.6
생활코칭(학습, 연애 등)	20	14.3
심리검사(성격, 적성 등)	66	47.1
교육(특강, 워크샵 등)	11	7.9
사이버(e-mail) 상담	8	5.7
무응답	2	1.4
합계	140	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6)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사랑하면 괜찮다는 인식(36.7%)의 세부내용에 있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는 여성이 23.5%의 비율을,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이라는 남성이 66.7%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음	0	24(23.5)	24(20.5)
사랑하면 괜찮음	5(33.3)	38(37.3)	43(36.7)
결혼이나 사랑 없이도 가능	0	2(2.0)	2(1.7)
절대로 안 됨	0	3(2.9)	3(2.6)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	10(66.7)	32(31.4)	42(35.9)
이성간의 충동에 의한 결과	0	3(2.9)	3(2.6)
빈도/총 인원	15/15	102/99	117/114(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7) 이성친구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생각

이성친구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는 전 체비율이 43.0%인데, 세부내용에 있어서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이라는 인식은 남성이 66.7%,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인식은 여성이 15.2%를 나타내었다.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음	2(13.3)	1(1.0)	3(2.6)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면 가능	3(20.0)	46(46.5)	49 (43.0)
결혼이나 사랑과 관계없이 가능	0	1(1.0)	1(0.9)
단호하게 거절	0	15(15.2)	15(13.2)
이성간의 대화에 의한 선택	10(66.7)	35(35.4)	45(39.5)
무응답	0	1(1.0)	1(0.9)
빈도/총 인원	15/15	99/99	114/114(100.0)

8)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일단 참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얘기	1(6.7)	3(3.0)	4(3.5)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의사 밝힘	5(33.3)	41(41.4)	46(40.4)
친구 또는 가족과 의논	3(20.0)	19(19.2)	22(19.3)
불쾌해도 혼자 참음	0	4(4.0)	4(3.5)
교내 상담센터에 의논	2(13.3)	2(2.0)	4(3.5)

경찰이나 외부센터에 신고	4(26.7)	30(30.3)	34(29.8)
빈도/총 인원	15/15	99/99	114(100.0)

9) 피임에 대한 인식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현재 필요치 않아서 관심 없음	0	11(10.8)	11(9.4)
필요성 있으나 구체적 방법 모름	3(20.0)	5(4.9)	8(6.8)
방법을 알고 있고 필요하면 할 수 있음	6(40.0)	21(20.6)	27(23.1)
피임은 상대방의 책임임	1(6.7)	0	1(0.9)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한 필수	4(26.7)	64(62.7)	68(58.1)
피임도구에 거부감	0	1(1.0)	1(0.9)
무응답	1(6.7)	0	1(0.9)
빈도/총 인원	15/15	102/99	117/114(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10)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시 원하는 주제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피임법, 성병 관련 교육	3(16.7)	41 (31.1)	44(29.3)
성 인지 감수성	3(16.7)	8(6.1)	11(7.3)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4(22.2)	29(22.0)	33(22.0)
연인과의 스킨쉽과 성 의사소통	4(22.2)	14(10.6)	18(12.0)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4(22.2)	32(24.2)	36(24.0)
기타(신체방어기술 등)	0	8(6.1)	8(5.3)
빈도/총 인원	18/15	132/99	150/114(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11) 선호하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방법

내 용	남성(%)	여성(%)	전체빈도(%)
동성끼리 교육(남/녀 따로)	3(20.0)	46 (43.0)	49(40.2)
단체교육(채플, 특강 등)	5(33.3)	30(28.0)	35(28.7)
수업 후 학년별 특강	1(6.7)	9(8.4)	10(8.2)
학과별 특강	3(20.0)	15(14.0)	18(14.8)
학생회주관 교육	2(13.3)	3(2.8)	5(4.1)
기타(개인특강, 신체방어기술 등)	0	3(2.8)	3(2.5)
무응답	1(6.7)	1(0.9)	2(1.6)
빈도/총 인원	15/15	107/99	122/114(100.0)

주. 복수응답자가 있어서 본 설문에 참여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12) 성 관련 고민 시 상담코칭센터 이용 의사

내 용	응답인원	%
그렇다	29	25.4
아니다	75	65.8
모르겠다(겪어보지 않아서 생각 안 해봄 등)	8	7.0
무응답	2	1.8
합계	114	100.0